

노출된 위험 (5/2/2014)

현대인은 물질문명의 발달로 편리한 세상에서 산다. 또 의학의 발달로 과거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되었다. 하지만 현대인은 물질의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얻는 대신, 잃어버리는 것도 많다. 현대인은 일상에 많은 위험을 안고 산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된 것일까? 각종 질병, 교통사고, 화재 사고, 재난사고, 총기사고, 산재사고, 등등 하루에도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는 사고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작 내가 당하지 않으면 남의 일로 치부되고 거짓말처럼 잊혀지고 잊고 산다. 타인의 고통은 치통(齒痛)과 같다고 한다. 아픈 당사자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나는 아픔을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고는 반복성이다. 사고는 확률이다. 인재든, 자연재해든, 산업재해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고통이며 재앙이다.

오늘은 부활절이다. 한국의 세월호 침몰사건이 난지 5 일째 되는 날이다. 사망 33 명이고, 실종자 269 명은 생사조차 알지 못한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온 국민이 함께 애를 태우며 울고 공분하고 있다. 내 칼럼은 2 주일 뒤에 출간되니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 종료되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종류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나의 고객들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는 예상 외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많다. 교통사고는 나만 조심한다고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업무상 많은 시간을 운전한다. 하루에도 몇건의 교통사고를 목격한다. 그 많은 교통사고가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각종 질병은 어떠한가? 지금도 질병으로 고생하시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분도 많다. 며칠전 가까운 손님이 한국을 2 주간 다녀오셨다. 한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두분 모두 치매(알츠하이머) 환자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치매환자여서 아버지가 간병을 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당신의 수입은 없고 한채 있는 집마저 월세로 옮기면서 어머니를 돌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마저 치매환자이니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치매의 정도가 심하여 한국의 형제들도 못모시겠다고 하고, 그렇다고 대책없이 미국에

모시고 올 수도 없는 형편이다. 자식들도 각자 살기가 빠듯하다. 시대가 그러하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또 며칠전 나의 고객 중에는 아내가 치매환자여서 남편이 항상 데리고 가게에 나가는 노부부가 계셨다. 그날도 가게를 가는 길에 느닷없이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두분이 크게 다치셨다는 것이다. 차량이 전파되고 두분은 헬기로 후송되는 큰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언젠가 한국의 여류작가도 치매에 걸렸는데 남편이 간병을 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자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더없이 사랑하였기에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집집마다 사고를 당한 기막힌 사연들을 들으면 가슴이 먹먹하다. 당장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니 미리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내가 당할 일들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다. 어쩌면 현시대를 산다는 것이 마치 영화 <디어 헌터>에 나오는 <러시안 룰렛>게임을 하는 것 같다. 월남전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전쟁의 모순에 미쳐가는 미군 탈출병의 이야기다. 도박판에 선수 두명이 무대 위로 올라온다. 미친 관객들은 어느 한쪽에 돈을 건다. 각 선수에게는 38 구경 권총이 주어진다. 38 구경에는 6 발의 탄환을 장착할 수 있는데 각 선수에게는 한발의 탄알이 주어진다. 그리고는 권총 멍치돌이를 돌려버리면 탄환이 어느 칸에 장착되었는지 모른다. 그리고는 각자의 권총을 자기 머리 관자놀이에 겨눈다. 죽을 확률은 6분의 1이다. 두명 중에 한명이 포기하거나 죽을 때까지 자살놀이는 계속 된다. 죽을 확률만 낮다는 것일 뿐, 현대의 삶이 무엇이 다른가. 매일 교통사고는 일어나는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오늘은 내가 아닌 것 뿐이다. 다소 과장된 생각일 수는 있다. 하지만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끔은 내가 혹은 내 아내가 치매나 불치의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지레 생각한다. 설령 자식들의 효성이 지극하여 치매걸린 부모를 서로 모시겠다고 하여도 과연 내가 허락할 수 있을까? 물려줄 재산도 없거니와 자식들의 삶에 짐이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래도 자식들이 고집을 피우면 나는 자식들이 알지 못하고는 곳으로 멀리 떠날 갈 것이다. 아내가 치매에 걸리면 나는 아내를 데리고 다녀야 한다. 노후에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만한 돈이 없으니 나는 내 기력이 남아 있는한 일을 해야 먹고 산다. 그러니 아내는 내가 24 시간 데리고 다녀야 한다. 그런데 내가 만약 치매에 걸리면 문제가 심각하다. 아내는 다른 재주는 많은데, 돈을 버는 재주가 전혀 없다. 그러면 자식들에게

*본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씨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아내를 남겨두고 내가 멀리 떠나야 한다. 미국의 인디언들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리면 담요 한장만 들고 자신만이 아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다행히 병이 치료되면 돌아오고,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정리한다는 것이다. 소설 같은 서글픈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 세대는 인디언처럼 이렇게 될 지 모른다. 노인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미국이라는 국가는 점점 가난해지니 내 노후를 맡길 수도 없고, 보장하지도 못한다. 자식들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기도 벅차다. 내 목숨은 내 스스로 정리해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더우기 현대인에게는 믿음과 종교생활이 필수인지도 모른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